

▶ 내신 기출 국어, 미래엔-상편 ◀

1. 문학의 빛깔

- (1) 슬픔이 기쁨에게 (58문제)-----1쪽
- (2) 달밤 (59문제)-----29쪽
- (3) 파수꾼 (58문제)-----74쪽
- (4) 통곡할 만한 자리 (30문제)-----120쪽

2. 책 속에 길이 있다

- (1) 삶을 바꾼 만남 (40문제)-----142쪽
- (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19문제)-----167쪽

3. 생각하고 표현하고

- (1) 글쓰기를 잘하려면 (33문제)-----179쪽
- (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30문제)-----203쪽

4. 소통의 힘

- (1) 이유 있는 여유 (30문제)-----222쪽
- (2) 매체로 보는 세상 (18문제)-----243쪽

5. 바른 언어생활

- (1) 음운 변동 (61문제)-----255쪽
- 한글 맞춤법 (65문제)-----274쪽

- ◆빠른 전체 정답-----294쪽
- ◆해설-----297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삶을 바꾼 만남” 명리 요약

■ 핵심 정리

갈래	수필(전기문)
성격	일대기적, 교훈적, 사색적
제재	다산과 제자 황상의 인연
주제	삶을 바꾸는 가치 있는 만남(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
특징	① 다산 정약용과 그의 강진 유배 시절 제자 황상의 일화를 시간순으로 구성함. ② 두 인물의 인연에 초점을 둔 사건을 제시하고 글쓴이의 비평을 덧붙여 이야기를 전개함.

■ 글의 구성

처음	황상과 다산의 첫 만남
중간①	황상이 학문에 매진하도록 한 다산의 가르침
중간②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에도 그를 스승으로 극진히 모신 황상
끝	정황계를 맺어 다산과의 만남이 지닌 가치를 이어 간 황상

■ 읽기 전-중-후 과정에 따라 어진이가 글 <삶을 바꾼 만남>을 읽은 방법

읽기 전	읽기 목적 확인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보고서를 쓰려고 함.
	훑어보기	제목과 소제목, 사진을 훑어봄.
	질문 만들기	질문① ‘삶을 바꾼 만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질문② 사진 속 초가집은 다산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질문③ 황상은 어떻게 다산의 제자가 되었을까?
읽는 중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 ‘맛난 만남’은 삶을 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만남을 의미한다고 이해함. · ‘둔한 끝으로~뚝릴게다.’라는 다산의 말이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함.
	질문 답 찾기	질문①의 답: 신분이 낮고 자신감 없던 황상이 다산을 만나 참된 공부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을 뜻함. 질문②의 답: 다산이 귀양을 가서 머무르던 곳 질문③의 답: 용기를 내어 다산을 찾아감.
	새롭게 알게 된 점	· 민첩하고 총명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님. · 다산은 둔하고 미욱하더라도 부지런하고 꾸준한 사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함. · 다산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간 후에도 다산과 제자들은 다신계를 만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 다산과 황상 두 사람의 인연이 <정황계안>을 통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짐.
	숨겨진 의미 추론	· 다산은 자신을 성찰하는 겸손한 제자를 얻었고, 황상은 생각이 깊은 스승에게 배우게 되었음. 이것이 곧 ‘맛있는 만남’임.

2-(1) 삶을 바꾼 만남 [이론편]

		· 스승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먼 거리에 있는 스승의 묘를 찾아가는 것을 보아, 황상이 다산을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공감하며 읽기	· ‘정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 사진을 보고 스승을 그리워하던 황상의 모습을 떠올림. · 친한 친구와 이별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황상의 심정에 공감함.
	질문 만들기	질문④ 강진에서 다산이 가르친 제자들은 또 누가 있었을까? 질문⑤ ‘두릉’은 오늘날의 어디를 지칭할까? 질문⑥ 스승을 뵈고 돌아가던 중 스승의 부고를 듣게 된 황상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읽은 후	중심 내용 파악하기	다산과 황상의 인연을 통해 스승과 제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음.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쓸 때 바람직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난 사례로 황상이 스승인 다산을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모습을 제시하기로 함.

■ 읽기 방법을 점검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

글을 읽는 목적이나 글의 특성 등에 따라 읽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독자는 구체적인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읽기의 모든 과정에서 읽기 방법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독도, 삼천포 지역의 포도” 정리 목록

■ 핵심 정리

갈래	설명문
성격	해설적, 체계적
제재	독도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주제	독도의 주변에 묻혀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가치와 개발 현황
특징	① 독도의 중요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함. ② 독도 보존의 의미를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효용과 관련지어 설명함.

■ 글의 구성

처음	독도의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메탄 하이드레이트
중간	동해에서의 메탄 하이드레이트 발견과 상용화 과정의 어려움
끝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효용 면에서 더욱 부각되는 독도의 의미

■ 읽기 전-중-후 과정에 따라 글을 읽는 방법

읽기 전	읽기 목적 확인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제목, 소제목, 사진 등을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읽는 중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글의 구조, 장면, 절차,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읽기
	예측했거나 질문했던 내용을 확인하며 읽기
	숨겨진 의미나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며 읽기
읽은 후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 생각하기

■ 다양한 읽기 방법

전부 읽기	글 전체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읽는 것.
발췌 읽기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읽는 것.
속독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빨리 읽는 것.
지독	의미를 새겨 가지며 천천히 읽는 것.
통독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글 전체를 대강 살펴보는 것.
정독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려고 자세히 읽는 것.
미독	글의 내용, 형식, 표현 등을 음미하며 읽는 것.

“말을 바꾼 만남” 구명 활동

1)

교과서 76쪽 3행

만남은 만남이다.

→ 비슷한 발음을 가진 두 단어를 엮어서 주제를 상징적·집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2)

교과서 76쪽 8행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짹 짹 낼 수가 없다.

→ ‘고장난명’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삶을 바꾸는 만남은 일방적인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만남의 당사자 두 사람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교과서 76쪽 13~16행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 문을 퐁퐁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숙하고 있었다.

2-(1) 삶을 바꾼 만남 [이론편]

→ 성리학적 가치 체계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에서 천주교는 지배층으로부터 격렬한 비판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다산은 천주교에 입교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장기와 강진에서 귀양 생활을 했는데, 특히 19년간 유배되어 있던 강진에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처음 강진으로 귀양 왔을 때, 다산을 대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4)

교과서 78쪽 15~16행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 다산이 공부하기를 주저하는 황상의 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 해 준 말이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5)

교과서 80쪽 6~10행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백 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 강진에서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떠난 스승을 그리워하는 황상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다. 스승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의 옛터를 서성이고, 스승이 바위에 파서 새긴 글자를 어루만지는 황상의 모습에서 스승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드러난다.

6)

교과서 82쪽 13~15행 **이것은 우리 두 집안 노인의 성명과 자손의 이름을 적은 것이다. 정학연은 침침한 눈으로 천 리 먼 길에 써서 보낸다. 두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져갈진저. 계를 맺은 문서를 제군들에게 돌리노니 삼가 잃어버리지 말라.**

→ 다산의 아들인 정학연, 정학유 형제와 황상이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자손 대대로 인연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쓴 <정황계안>의 내용이다. 다산과 황상의 아름다운 만남은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집안 대대로 이어나가게 된 것이다.

“삶을 바꾼 만남” 글에서 읽을 내용

1.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 뜻을 적어 보자.

- 귀양 : 고려·조선 시대에,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 서만 살게 하던 형벌.
- 체취: 어떤 개인이나 작품에서 풍겨 나오는 특유의 느낌.
- 혼미: 의식이 흐림. 또는 그런 상태.
- 접부채: 접었다 폈다 하게 된 부채.
- 기별: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또는 소식을 적은 종이.

2. 읽기 목적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조사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다산은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일까?

㉡. 즐거움과 감동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

- 내가 황상이라면 내 처지를 솔직하게 말하고 가르침을 청할 수 있었을까?
- 내가 다산이라면 황상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었을까?

3. 어진이의 읽기 과정이 읽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알맞은지 점검해 보자.

- 읽기의 목적이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므로 다산이 황상을 비롯한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살펴보는 읽기 방법은 적절한 것 같아.
- 스승이나 제자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관계를 생각해 보는 읽기 방법이 적절해 보여.

4. 어진이가 만든 질문의 답을 찾아 적어 보자.

- 질문 4 : 다른 글을 찾아보니, 다산은 황상 외에도 다산초당을 마련해 준 윤규로의 자녀 등 강진에서 지낸 19년 동안 18명의 제자를 두었다고 해.
- 질문 5 : 두릉은 다산의 생가인 여유당(與猶堂)이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를 가리키는데 그 전에는 소내 또는 두릉이라고 했고 다산의 5대조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
- 질문 6: 부모를 잃은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을 것 같아.

5. 이 글을 읽기 전과 읽는 중에 자신이 만든 질문의 답을 확인해 보자.

〈77쪽에서 만든 질문의 답〉

- 1) 삶이 달라지는 만남이란 어떤 모습일까? → 황상은 다산을 만나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학문에 눈을 뜰 수 있었어. 다산은 황상을 만나 자기 평생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었지.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기에 이렇게 서로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 2) 절망의 시간에 만난 제자는 스승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 외로운 유배 생활 중에 자신에게 배움을 청하는 황상을 통해 다산은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 3) 다산에게 황상은 왜 눈물겨운 제자였을까? →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시기에 찾아온 제자인 황상이 자신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다산에게는 눈물겹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
- 4) 황상에게 다산은 어떤 스승이었을까? → 학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준 삶의 등불 같은 스승이었던 것 같아.
- 5) '정황계'의 뜻은 무엇일까? → 정약용과 황상의 집안이 대대로 신의를 맺고 우의를 다져갈 것을 다짐하는 약속

6.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 보자.

→오랜 시간 동안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학문에 꾸준히 정진하는 황상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에게도 삶을 변화시킬 만큼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지,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7.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을지 생각해 보자.

- 독도 주민의 생활에 대한 면담 보고서 작성
- 독도 주변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사 작성
- 독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발표 자료 수집
- 독도 탐방 계획을 위한 위치와 날씨 정보 수집
- 독도 주변 수산 자원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
- 독도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표 작성 등

8.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며 글을 읽어 보자

〈읽기 전〉

- 읽기 목적: 독도 주변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사 작성
- 배경지식: 텔레비전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 얼음처럼 생긴 물질에 불을 붙였더니 활활 타오르는 영상이 있어.
- 질문 만들기: 독도 주변에는 자원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이 있을까? /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 가능한 물질일까?

〈읽는 중〉

-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이라는 지리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어 경제적 가치도 크군.
- 이미지 그리며 읽기: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볼 수 있는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한 모습이군.
- 질문했던 내용 확인하기: 독도 주변 바다에는 어족 자원뿐 아니라 회귀 동식물, 해양 심층수, 인산염,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무궁무진한 자원이 묻혀 있군. /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으로 꼽히고 있군.
-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기: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독도 주변 에너지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 모르는 단어 사전에서 찾기
- 분지: 해발 고도가 더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평지.
- 지질: 지각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암석이나 지층의 성질 또는 상태.
- 해저: 바다의 밑바닥.
- 박차: 어떤 일을 촉진하기 위해 더하는 힘.
- 환산: 어떤 단위나 척도로 된 것을 다른 단위나 척도로 고쳐서 헤아림.
- 육박: 바짝 가까이 다가감.
- 시추: 지하자원을 탐사하거나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
- 채굴: 땅을 파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 따위를 캐냄.
- 지급률: 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공급하는 비율.

〈읽은 후〉

① 독도 주변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수많은 자원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독도 주변 에너지원의 발견은 에너지 자급률이 낮은 우리에겐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펼쳐줄 것이다.

② 독도와 동해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③ 동해의 지질 구조가 오후츠크 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독도 주변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주변 지하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에너지원으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기사로 작성해야겠다. 그리고 독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해야겠다.

9. <정보 습득의 목적>과 <감동과 즐거움의 목적>의 상황에서는 어떤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읽으며 좋을지 생각해 보자.

- <정보 습득의 목적>: 발췌 읽기, 속독, 통독
- <감동과 즐거움의 목적>: 전부 읽기, 지독, 정독

타당 지식 더하기

■ 읽기의 목적과 상황에 따른 독서

동일한 글을 읽더라도 읽는 목적과 상황이 달라지면 읽기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독자는 구체적인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

정보 획득을 위한 읽기	판단이나 태도 강화를 위한 읽기	심미적 체험을 위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훑어보기 • 해석하며 읽기 • 비판하며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료화하기 • 객관화하기 • 주체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시하기 • 감정 이입하기 • 대상화하기

■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

글의 특성	읽기 방법
정보를 전달하는 글 (설명문, 기사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 정보의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며 읽기 • 그림 및 도표 해석하기
설득하는 글 (논설문, 광고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하며 읽기 •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과 타당성을 따지며 읽기 •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읽기
경서를 표현하는 글 (시, 소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내용에 공감하며 읽기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상상하며 읽기 • 작품 속 배경과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며 읽기

■ 읽기 전-중-후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삽화나 사진 등을 훑어보고 내용 예측하기 • 질문 만들기
읽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르는 단어의 뜻 찾기 • 구절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하기 • 질문에 대한 답 찾기와 숨겨진 내용 추론하기 • 질문 만들기
읽은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자신의 읽기에 대해 평가하기 •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한 활용 방안 생각하기

■ 읽기 과정에서의 점검과 조정의 필요성

실제 읽기 과정에서 글의 내용이 읽기 전에 예측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고, 글의 수준이나 독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음.
→ 처음에 정한 독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

→

독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함.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난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 만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난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 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짹 짹 낼 수가 없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맛난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제자인 황상(黃裳)이다.

(나)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 쭈뼛 엉겨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잔뜩 주눅 든 소년에게 다산은 기를 북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 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 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옥한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요,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그믐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茶信契)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부쳐 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丁石)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라) 황상은 스승의 10주기를 맞아 다시 두릉을 찾았다. 다산의 아들 정학연(丁學淵)은 10년 만에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황상을 보고 신을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황상은 이제 예순을 눈앞에 둔 늙은이었다. 꼬박 18일을 걸어와 스승의 묘 앞에 섰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부르튼 발을 보고 학연은 아버지 제자의 손을 붙들고 감격해 울었다. 그의 손에는 그 옛날 스승이 주었던 부채가 들려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림고 제자의 두터운 뜻이 고마워, 늙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부채 위에 시를 써 주었다. 그러고는 정 씨와 황 씨 두 집안 간에 계를 맺어, 이제부터 자손 대대로 오늘 의 이 아름다운 만남을 기억할 것을 다짐했다. 그 <정황계안(丁黃契案)>은 황상의 문집에 실려 있다.

- 정민, <미처야 미친다>

눈촌고등학교 (서울)

1.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한 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뒷글을 읽는다면,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생각하며 읽는다.
- ② 잘 모르는 생소한 단어는 사전을 찾아가며 뜻을 확인하고 읽는다.
- ③ 다산이 당시 귀양을 오게 된 배경과 사건 경위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는다.
- ④ 스승으로서의 다산의 행적과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주목해 읽는다.
- ⑤ 다산과 황상의 사제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는다.

눈촌고등학교 (서울)

2. 뒷글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맛난 만남에는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② 다산은 제자들과의 작별이 아쉬워 ‘다신계’를 결성했다.
- ③ 다산의 정신을 잇기 위해 황상은 ‘정황계’를 조직했다.
- ④ 다산은 황상에게 학문적 성취를 위해 부지런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⑤ 정학연은 황상의 마음에 감격하여 인연을 후대에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3. (나)에서 다산이 황상에게 사용한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비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격려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설득하는 말하기를 통해 대상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 ④ 학문을 위해서는 둔한 성격이 필수적임을 알려주어 청자의 기를 살려준다.
- 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둔촌고등학교 (서울)

4. 본문을 참고하여 ㉠의 비유적 의미를 2어절로 쓰시오.

둔촌고등학교 (서울)

5. (다)에 나타난 황상의 주된 정서를 한 단어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잔뜩 주눅 든 소년에게 다산은 기를 북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 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 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웁한 것을

뚫고 또 뚫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고,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탄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그믐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茶信契)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부쳐 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丁石)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백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그러던 그가 다산이 강진을 떠난 18년 후 1836년 2월 무슨 느낌이 있었던지 두릉 땅으로 다산을 찾아뵈었다. 스승 내외의 회혼례(回婚禮)를 축하드리고, 살아 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뵈자는 생각이었다.

이때 다산은 병세가 위중해 잔치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였다. 처음 만났을 때 열다섯 소년이었던 제자는 손을 눈앞에 둔 중늙은이가 되어 죽음을 앞둔 스승께 절을 올렸다. 곁에서 며칠 머물며 옛날이야기를 나누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뢰었을 때, 다산은 정신이 혼미한 중에도 그의 마디 굽은 손을 붙들고 작별을 아쉬워했다. 그냥 보내기 안타깝다며 접부 채와 운서(韻書), 피리와 먹을 선물로 주었다. 스승과 제자가 헤어지는 장면은 생각만 해도 그저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그렇게 헤어진 뒤 며칠이 안 되어 다산은 세상을 떠났다. 황상은 도중에 스승의 부고를 듣고, 그 길로 되돌아와 스승의 영전에 곡을 하고 상복을 입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 정민, 「삶을 바꾼 만남」

진건고등학교 (경기)

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산과 황상의 인연에 대한 글쓴이의 비평을 덧붙이고 있다.
- ② 다산은 황상의 총명함을 칭찬하며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③ 다산이 강진을 떠난 뒤 황상은 다산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했다.
- ④ 황상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그의 성격과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가치 있는 만남은 무엇인지 글쓴이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진건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읽은 목적이 <보기>와 같을 때, 읽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주제로 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읽음.

- ① 다산과 황상이 가까워진 계기에 주목하며 읽어야겠어.
- ② 다산과 황상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 살피며 읽어야겠어.
- ③ 황상 외에 다신계에 속한 제자들이 누구였는지 조사해 봐야겠어.
- ④ 다산이 어떻게 황상의 기를 복돋아 주었는지 주목하며 읽어야겠어.
- ⑤ 다산의 귀양살이의 이유와 다산의 업적이 조선에 미친 영향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겠어.

진건고등학교 (경기)

8. 윗글을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ㄴ.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한다.
 ㄷ.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ㄹ.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이해한다.
 ㅁ. 새로 알게 된 내용의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
 ㅂ. 글의 구조, 장면, 이미지 등을 머릿속에 그리며 읽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 ④ ㄴ, ㄹ, ㅂ ⑤ ㄴ, ㄷ, ㅂ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절망의 시간에 만난 눈물겨운 제자, 황상

만남은 만남이다. 누구든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몇 번의 만남 만남을 경험한다. 이 몇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만남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만남 앞에서도 길 가던 사람과 소매를 스치듯 그냥 지나쳐 버리고는 자꾸 딴 데만 기웃거린다. 물론 모든 만남이 만남 것은 아니다. 만남이 맛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외손뼉만으로는 소리를 짹 짹 낼 수가 없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달라지는 만남 만남, 그런 만남을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다산 정약용과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제자인 황상(黃裳)이다. 시골의 학구(學究)에 불과했던 황상이 쓴 문집 《치원유고(坵園遺稿)》를 뒤적일 때마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뭉클해

진다.

황상은 열다섯 살 나던 1802년 10월 다산을 처음 만났다. 당시 다산은 강진으로 귀양 와 있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 겁이 나 문을 퐁퐁 닫아걸고 받아 주려 하지 않아, 그는 하는 수 없이 동네 주막집 방 한 칸을 빌려 ㉡기식하고 있었다.

(나) 아둔하고, 딱 막히고, 융통성 없는 제자를 위한 가르침

황상은 강진 고을 아전의 자식이었다. 서울에서 온 훌륭한 선생님이 아전의 아이들 몇을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주막집을 찾았다. 그렇게 며칠을 내쳐 찾아가 쭈뼛쭈뼛 엉거주춤 글을 배웠다. 7일째 되던 날 다산은 수업을 마친 황상을 따로 불러 앉혀 놓고 말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선생님! 저는 머리도 나쁘고, 앞뒤가 꼭 막혔고, 분별력도 모자랍니다. 저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잔뜩 주눅 든 소년에게 다산은 기를 복돋워 준다.

“그럼 할 수 있고말고. 항상 문제는 제가 민첩하다고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단다. 한 번만 보면 척척 외우는 아이들은 그 뜻을 깊이 음미할 줄 모르니 금세 잊고 말지. 제목만 주면 글을 지어 내는 사람들은 똑똑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저도 모르게 경박하고 들뜨게 되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만 던져 주면 금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곱씹지 않으므로 깊이가 없지. 너처럼 둔한 아이가 꾸준히 노력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니? ㉢둔한 끝으로 구멍을 뚫기는 힘들어도 일단 뚫고 나면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는 ㉣큰 구멍이 뚫릴 거다. 꼭 막혔다가 뺨 뚫리면 거칠 것이 없겠지. ㉤미운 것을 닦고 또 닦으면 마침내 그 광채가 눈부시게 될 것이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니? 첫째도 부지런함이고, 둘째도 부지런함이며, 셋째도 부지런함이 있을 뿐이다. 너는 평생 ‘부지런함’이란 글자를 절대 잊지 말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잡아서 딴 데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황상은 스승의 이 가르침을 평생을 두고 잊지 않았다.

(다) 아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모시다

다산은 강진에서 19년에 걸친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1818년 8월 그날, 다산은 강진을 떠나면서 제자들과의 작별이 못내 아쉬워 다신계(茶信契)를 결성했다. 그 후로도 제자들은 해마다 힘을 합쳐 차를 따서 서울에 계신 스승에게 부쳐 드리곤 했다. 하지만 스승을 잃은 다산초당(茶山草堂)은 점차 황폐해져 갔던 듯하다. 황상은 스승의 체취가 못 견디게 그리우면 문득 다산초당을 찾아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초당의 옛터를 서성이며 스승이 손수 파서 새긴 정석(正石)이란 두 글자를 어루만지다가, 스승이 일군 대숲과 연못을 보며 지난날의 맑은 ㉥풍정을 그리워했다. 그러면서 스승이 계시던 옛터를 백년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을 서글퍼했다.

‘무리처럼 경험을 하며 포기하는 버릇이 있다’ 필적

■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수필
성격	교훈적, 비유적, 경험적
제재	꿈을 포기하는 버릇
주제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특징	①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교훈을 전달함. ② 직접적인 당부와 조언이 드러남. ③ 비유법, 도치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글의 구성

처음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를 꿈꿨다가 포기했던 일화 소개
중간	‘포기하는 버릇’에 대한 후회와 반성
끝	진로 선정과 꿈을 향한 도전에 대한 당부

■ 표현상의 특징

비유법의 사용	은유법	꿈의 불꽃
	직유법	·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풍유법(속담)	달갈로 바위를 치는 심정
도치법의 사용	정상적인 말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함.	
열거법의 사용	비슷한 구절을 나열해 내용을 강조하고,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함.	

쓰러져 버린 모양

1)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2)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진로와 관련하여 달라진 생각을 써 보자

읽기 전	읽기 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이나 미래에 각광받을 만한 진로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려고 했다. 또 주변 상황이나 어른들의 조언을 많이 고려하는 편이었다.	이 글을 읽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집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 (가)~(라)에 나타난 문제점을 써 보자.

- (가): 실험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숫자를 살짝 바꿔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야지.
 (나): 독후감 쓰기 숙제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네. 형이 쓴 독후감을 베껴서 내야겠다.
 (다): 직접 찾아가서 조사해야 할 것 같아. 귀찮으니까 인터넷에서 적당히 찾아 이어 붙여야겠다.
 (라): 인용한 자료를 가져온 사이트가 기억나지 않아. 대충 아무거나 써서 내도 아무도 모르겠지?

(가)	실험 결과를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나)	다른 사람이 쓴 과제를 자신이 쓴 것처럼 베끼고 있다
(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미려 하고 있다.
(라)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탐방 직업 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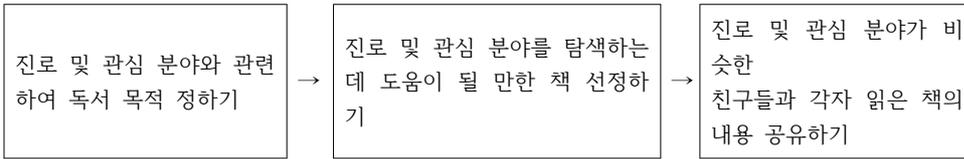
■ 능동적인 진로 독서

- 진로 독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등을 탐색하면서 책을 읽는 활동이다.
-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진로 독서의 단계

1단계	· ‘나는 누구인가?’, ‘남과 내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등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답 찾기 · 자기 탐색을 도와줄 수 있는 책 찾아 읽기
2단계	· 직업의 세계와 진로를 선택하는 방법을 담은 책 읽기 ·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더 잘 이해하고 보다 좋은 직업 선택해 보기
3단계	· 전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인문학적 소양과 올바른 인성, 직업 윤리 등을 갖추기 위하여 청소년 성장 소설, 자기 계발, 인문학, 고전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 진로 및 관심 분야와 관련된 독서 활동



■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

-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쓴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 쓰지 않는다.
- 글을 쓰면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 인터넷상에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다.
-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글을 쓴다.

■ 저작권법의 뜻과 위반 사례

뜻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대표적인 위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서 개인 누리집에 올리는 행위 • 컴퓨터 프로그램을 시디(CD)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 **홈피 자료실 파일 다운로드** ◀

- 출제 예상 연계 작품 정리
- 답 제거된 문제 반복 연습 파일
- 각종 시험 대비 자료 (기본문제, 자습서 등)

독자 노트

"기억나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고 설명하고 써보라"

대전구룡고등학교 (대전)

4. 글쓴이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1. 윗글의 끝부분, 두 문단을 참고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문장 형식에 맞게 서술할 것.
2. 윗글의 핵심어를 포함하여 서술할 것.
(1음절 혹은 2음절)
3. 문장형식 (예) ~야(해야) 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너 커서 뭐가 될래?”

내 꿈은 계절마다 바뀌어서,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하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 가장 오래 간직했던 꿈은, 부끄럽지만 피아니스트였다. 피아니스트의 삶이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나는 그저 피아노가 좋았다. 피아노를 ‘잘 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좋아했다.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은 이상하게도 잘 기억 나지 않는데, 꿈의 불꽃이 사그라지던 순간은 정확히 기억난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와 수다를 떨다가, 내가 피아니스트의 꿈을 꾸는 것이 부모님께 부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조숙한 척만 했지 전혀 철들지 못했던 초등학생에게 이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피아노 연습을 게을리 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나는 꿈을 여러 번 포기했다. 때로는 성적이 모자라서,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싫증나서 수도 없이 꿈을 포기했다. 내 꿈의 역사는 ‘포기의 역사’였다. 그런데 그 수많은 꿈을 포기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나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되었다. 실패가 두려워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전을 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아무리 이모의 말이 충격적이었던라든, 내가 피아노를 좀 더 뜨겁게 사랑했더라면, 좀 더 세상과 싸워 볼 용기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것이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 정여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

덕이고등학교 (경기)

5.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린 시절 꿈이 자주 바뀌었다.
- ② 실패가 두려워 꿈을 쉽게 포기하는 삶을 살았었다.
- ③ 특출 난 재능보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좋아했었다.
- ④ 진로를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도록 조언한다.
- ⑤ 진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길 권유한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6. 진로 탐구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획하기: 보고서의 주제 및 목적, 기간, 대상 등을 정한다.
- ② 자료 수집하기: 문헌 찾기, 인터넷 검색보다는 설문이나 면담, 견학 등 생생한 방법만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③ 자료 정리하기: 수집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개요를 작성한다.
- ④ 작성하기: 보고서의 형식에 맞추어 구상한 뒤 쓰기 윤리를 준수하여 작성한다.
- ⑤ 교쳐 쓰기: 보고서의 형식, 내용 및 표현, 쓰기 윤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교쳐 쓴다.

덕이고등학교 (경기)

7.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로 올바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정확히 밝힌다.
 ㄴ.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쓴다.
 ㄷ. 다른 사람이 생산한 글이나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ㄹ. 인터넷상에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달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처절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질투하고 존경한다.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포기의 역사보다는 실패의 역사가 아름답다는 것을. 제대로 부딪쳐 보지도 않은 채 포기 하는 것보다는, 멋지게 도전하고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꿈을 이루는 데 실패 하더라도, 삶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님을.

얼마 전 내 소중한 벗이 불쑥 물었다. “넌 왜 그렇게 매사에 자신감이 없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적당히 둘러대긴 했지만, 그 말이 오랫동안 아팠다. ㉢가슴에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박힌 것 처럼, 시리게 아팠다. 내 삶의 치명적인 허점을 건드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오래 알아 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내 아픔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피아노를 포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포기하는 버릇’을 가슴 깊이 내면화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도전하기 전에, 미리 온갖 잔머리를 굴려 내 인생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고, 안되겠구나 싶어 지레 포기하는 것.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생긴 버릇이라 쉽게 고칠 수도 없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실제 상황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실제보다 훨씬 작게 생각하는 버릇. 그것은 금속에 슬기 시작한 ‘녹’ 같다. 처음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득 덮인 녹 때문에 원래 모습조차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나는 진로에 대한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관 때문에, 나의 원래 모습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나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실현 가능성’부터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진로를 생각할 때 곧바로 ‘직업’과 연결하지도 말았으면 한다.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의 안정을 1순위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건 괜찮다. 예컨대, 내가 얼마나 그 꿈에 몰두해 있을 수 있는지 실험해 보는 것.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약속 시각도 잊고, 무언가에 몰두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다.

- 정여울,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

독산고등학교 (서울)

8.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에 있을 법한 일을 꾸며 쓴 글
- ②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펼친 글
- ③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쓴 객관적 성격의 글
- ④ 자연이나 삶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
- ⑤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형식의 제약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 쓴 글

독산고등학교 (서울)

9. ㉠~㉣에 사용된 표현법이 쓰인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바람이 나에게 다가와 이제 웃으라고 말한다.
 ㉢ 강나루 건너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1) 슬픔이 기쁨에게

1.④ 2.④ 3.② 4.③ 5.① 6.② 7.⑤ 8.④ 9. '동사자'는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와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10.③ 11.④ 12.(1)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2) 일반적으로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감정이다. 그러나 작가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13.③ 14.② 15.⑤ 16.⑤ 17.① 18.⑤ 19.② 20.⑤ 21.겨울밤 거리, (살아온)추위, 어둠, 함박눈 22.④ 23.② 24.(1)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 (2) 남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 25.③ 26.⑤ 27.② 28.가진 자에게는 행복을, 소외된 이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다. 29.① 30.⑤ 31.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와 같이 '나'음을 반복한다. '주겠다', '멈추겠다' 등과 같이 어미 '-겠다'를 반복한다. 32.⑤ 33.⑤ 34.⑤ 35.③ 36. ③ 37.① 38.④ 39.⑤ 40.④ 41.⑤ 42.⑤ 43.④ 44.④ 45.① 46.④ 47.② 48.④ 49.㉠ 함박눈 ㉡ 봄눈 ㉢ 슬픔 ㉣ 기다림 50.④ 51.⑤ 52.③ 53.①② 54.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슬픔은 회피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고, 기쁨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감정이다. 하지만 작가의 문학적 인식으로는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슬픔은 이타적인 존재이다. 55.⑤ 56.③ 57.④ 58.(1)역설법 (2)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1-(2) 달밤

1.① 2.② 3.③ 4.② 5.④ 6.③ 7.② 8.⑤ 9.④ 10.⑤ 11.황수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과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행동을 통해 '나'가 황수건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2.① 13.④ 14. ⑤ 15.③ 16.④ 17.② 18.원배달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모습에서 황수건의 소박하고 순진한 성품을 알 수 있다. 19.⑤ 20.② 21.④ 22.② 23.⑤ 24.② 25.① 26.(1)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다. (2)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을 통해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27.① 28.③ 29.③ 30.② 31.⑤ 32.④ 33.③ 34.① 35.(A) 돈 삼원 (B) 참외 세 개, 다섯 송이의 포도 36.⑤ 37.⑤ 38.③ 39.④ 40.② 41.③ 42.① 43.윗글의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이고, <보기>의 서

술자는 1인칭 주인공이다. 44.② 45.① 46.⑤ 47.③ 48.① 49.② 50.황수건의 불우한 삶과 대비되어 서정적,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결말이 비극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51.⑤ 52.③ 53.식민지 근대의 그늘과 변두리 인생의 고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 54.③ 55.② 56.⑤ 57.② 58. ① 59.⑤

1-(3) 파수꾼

1.⑤ 2.⑤ 3.④ 4.③ 5.③ 6.⑤ 7.⑤ 8.④ 9.③ 10.③ 11.(1)희곡은 현재 시제로 서술된다. (2)'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 북을 두드린다. 12.③ 13.② 14.⑤ 15.① 16.⑤ 17.(1)㉠: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2)'춘장'은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한다 18.③ 19.④ 20.① 21.② 22.④ 23.② 24.③ 25.③ 26.⑤ 27.④ 28.④ 29. ① 30.① 31.② 32.(1)㉠ (2)㉡ 33.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한다,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34.⑤ 35.③ 36.④ 37.(1)사건과 인물을 통해 갈등을 제시한다. (2)배우들의 연기에 의한 공연을 전제로 한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제로 서술되어 있다. 38.(1)반어법 (2)'춘장'은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 때문에 심리가 불편하다. 39.㉠ 딸기 ㉡ 팻말 ㉢ 양철 북 40.⑤ 41.③ 42.② 43.⑤ 44.① 45.④ 46.⑤ 47.③ 48.② 49. (1) 우화 (2)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다. 50.⑤ 51.① 52.② 53.(1) 마을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2) 감추었던 진실을 뜻한다. 54.⑤ 55.③ 56.④ 57.③ 58.①

1-(4) 통곡할 만한 자리

1.③ 2.① 3.⑤ 4.⑤ 5.⑤ 6.④ 7.③ 8.㉠ 백담이 곧 보인다 ㉡ 의인화 ㉢ 주객전도 ㉣ 태복 9.⑤ 10.③ 11. ① 12.⑤ 13.④ 14.① 15.④ 16.① 17.④ 18.④ 19.③ 20.즐거움, 기쁨 21. (C): 좁은 조선 (D): 요동 별판(중국, 청나라) 22.③ 23.⑤ 24.진정한 울음은 지극한 상황을 겪어야 나올 수 있다. 25.캄캄하고 좁은 곳에 있다가 넓은 곳으로 나와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26. ② 27.⑤ 28.① 29.① 30.③

2-(1) 삶을 바꾼 만남

1.③ 2.③ 3.④ 4.학문적 성취 5.아쉬움(그리움) 6.① 7.⑤ 8.② 9.③ 10.② 11.② 12.④ 13.㉠ 둔한 사람 ㉡ 큰 학문적인 성취 14.① 15.④ 16.⑤ 17.② 18.① 19.③ 20.⑤ 21.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람도 꾸준히 노력하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 22.② 23.② 24.④ 25.⑤ 26.③ 27.② 28.① 29.① 30.④ 31.④ 32.② 33.⑤ 34.④ 35.④ 36.② 37.⑤ 38.① 39.④ 40.독도 주변 바다와 같은 분지 모양 지형을 의미한다.

2-(2) 삶의 방향을 찾는 독서

1.④ 2.⑤ 3.④ 4.진로를 정할 때 실현 가능성이나 생활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자신이 몰두할 수 있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한다. 5.④ 6.② 7.⑤ 8.⑤ 9.④ 10.⑤ 11.① 12.⑤ 13.② 14.④ 15.① 16.나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실현 가능성, 직업, 안정성)을 고려해 진로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은 후에는 (꿈에 몰두할 수 있는지, 그 꿈이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고려해서 내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7.선택한 읽기 방법: 발췌 읽기, 속독, 통독 / 선택한 이유: 보고서를 쓰기위한 정보 습득이 목적이므로, 글 전체를 대강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빠르게 읽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8.① 19.①

3-(1) 글쓰기를 잘하려면

1.② 2.④ 3.⑤ 4.① 5.④ 6.③ 7.② 8. (가): 인쇄 매체에 동영상 자료는 적절치 않음. (다):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9.② 10.⑤ 11.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12.④ 13.① 14.⑤ 15.핵심 주장-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다. 세부 주장1-개인 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사진이나 개인 기록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근거-개인 정보가 흘러 나가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세부주장2-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근거-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세부 주장3-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근거-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③ 17.④ 18.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19.④ 20.⑤ 21.⑤ 22.④ 23.㉠-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는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한다. 24.④ 25.⑤ 26.⑤ 27.④ 28.③ 29.⑤ 30.⑤ 31.(가)목적: 초연결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글을 써야겠어, (다)의 갈래: 설명문이다. 32.중간 1-2: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넣어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사물과 인터넷의 결합으로 신체적 한계 극복'이라는 내용을 넣는다. 중간 2-3: 예상 독자의 수준에 알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다. 33.③

3-(2)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1.⑤ 2.④ 3.⑤ 4.㉠입론 ㉡논제 ㉢반대신문 5.⑤ 6.① 7.① 8.③ 9.④ 10.① 11.④ 12.(2) 의문형 문장 대신 긍정형 서술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 논제는 하나의 과제를 담아야 하는데, 두 개의 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3.⑤ 14.③ 15.⑤ 16.② 17.③ 18.④ 19.② 20.② 21.③ 22.④ 23.③ 24.③ 25.② 26.논제를 제시한다. 토론 방식을 안내한다. 토론 시 유의할 점을 제시한다. 27.② 28.④ 29.③ 30.(1) 청소년은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 연령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2) 또다시 투표 연령을 낮추면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4-(1) 이유 있는 여유

1.㉠: 시간적 ㉡: 행동 ㉢: 훈련 ㉣: 자발적으로 나서서 만드는 여유가 중요함 2.① 3.③ 4.③ 5.급할수록 돌아가라 6.⑤ 7.① 8.⑤ 9.④ 10.<보기1>의 화자는 '실시하면 일년 생애 허사인가와 같이 때를 놓치면 일년이 헛되게 된다고 말하며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윗글의 작가는 여유가 나를 위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유를 만드는 일은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을 나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일이며, 스스로에게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 주는 일이며,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일이며,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1.④ 12.④ 13.⑤ 14.자발적으로 여유를 만들자 15.⑤ 16.④ 17.③ 18.① 19.② 20.⑤ 21.① 22.③ 23.① 24.④ 25.② 26.물질 만능주의 27.③ 28.③ 29.① 30.①

- *모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19.③

▶㉔인 인위적인 소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런 소리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이상 ↔ 현실

22.③

▶요동 들판을 보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다고 한 까닭은 요동 별판에 대한 광활함으로 인해 마음이 벅차올라서임.

23.⑤

▶내가 부귀공명을 꺼려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표현임.

<상춘곡>

*주제: 봄 경치의 완상과 안빈낙도

*해제: 이작품은 전장(全章) 79구로 이루어진 가사로, 작자가 고향에 돌아와 자연에 묻혀 봄을 완상하고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성격의 노래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이자, 산림 처사로서의 생활을 다루는 은일지사의 첫 작품으로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또한, 자연을 소재로 하여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주제를 부각시켜 소위 사림파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은일지사의 한정과물아일체의 경지와 취락을 즐기는 풍류의 미학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26.②

▶갈등은 없지.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7.⑤

▶㉔ : 요동 별판의 광활함을 비유한 것이지, 다양한 실례를 구체적으로 든 것은 아님.

▶응, 헛갈리지 마!◀

사례 vs 예시 (★)

- ㄱ. 사례(실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사례와 예시를 구별하지 않고 쓰기도 하나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쓰는 문제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기에 꼭 구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29.①

▶<도산십이곡>에서는 삶의 즐거움을 부귀공명에 두는 일반적 통념을 벗어나 책을 읽는 풍류에 가치를 두는 정서가 드러남. 나머지는 모두 비교적 일반적 통념에 준하는 정서임.

② 효를 하지 못하는 서러움 ③ 이별의 슬픔 ④ 임에 대한 그리움 ⑤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개에 대한 원망

▶옳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 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0.③

▶둘 다 수필이니까 맞는 말.

⑤ <보기>는 경수필로 사회 비판이 아닌, 개인적인 깨달음을 나타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수필에 대해 알아보자 (★)

- 1) 개념: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
- 2) 특성:
 - 무형식의 형식 -비전문적인 글 -개성의 문학
 - 고백의 문학-소재의 다양성
 - 1인칭의 문학(글쓰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 3) 종류
 - 1) 경수필: 편지, 기행문, 일기, 수기 등
 - 2) 중수필: 칼럼, 평론 등

2-(1) 삶을 바꾼 만남

1.③

▶귀양 배경과 사건 경위는 '바람직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주제에 어울리지 않음.

2.③

▶정향계를 조직한 이는 정학연임.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틀린 선지의 형태

주체 바꿔치기 / 객체 바꿔치기 / 서술어 바꿔치기
→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체나 객체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3.④

▶둔한 성격이 필수적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둔한 성격의 장점을 치켜세워준 거지.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